

한일 사립 여고생 교복의 조형성에 관한 비교 문화 연구

-서울과 도쿄의 사립 여자 고등학교 교복을 중심으로-

윤수정* · 권하진**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Cross-cultural Research on Visual Values of Korean and Japanese Private Girl's High School Uniform

-Focused on Private Girl's High School Uniform in Seoul and Tokyo-

Su-Jeong Yun* · Ha-Jin Kwon** · Min-Ja Kim***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7. 5. 22 투고)

ABSTRACT

The culture includes every possible objective forms created by humans and their shared aspects of ideas, feelings, and behaviors, beliefs and etc. The dress and its ornaments are part of the culture that expresses the relationships in objective ways and in formless immaterial ways. The school uniform represents significant meanings to the students in their school years, and it is the way of expressing their individuality and full filling their needs for self-presentation. Therefore, understanding and analyzing youth culture means understanding students' school uniform along with fast changing twenty first century civilization.

Korea and Japan are very close nations to each other. Both Korean and Japanese girls' school uniform style were adopted western clothing style and went through many changes based on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They are affected by different peculiarities between two nations and youth cultures from different c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is on analyzing how different visual values of girl's high school uniforms in Seoul and Tokyo and understanding youth cultures through macro-analysis.

The youth cultures in Korea and Japan are mostly similar but there is special development on animation in Japan and possibly can find many styles of girl's high school uniform. Both nations are varying to be opened to sexual culture of adolescents but Japan is more uninhibited than Korea. In Japan, sailor-uniform can be found in fetish way in public culture. On one hand, because of most private girl's high schools in Tokyo takes an entrance examination, top-ranking students are very proud of their school uniforms and even students from other public high schools get private high school uniforms to attend school festival.

This analysis showed that private girl's high school uniform in Seoul appealed as slim fitted silhouette which is close to modern woman's suit style while in Tokyo appealed as boxy style matched with short pleated skirt or sailor-uniform style. Comparing that to school uniform photos taken on the street, we can find that likeness or more extreme styles as examples. These are influenced by different youth cultures in Seoul and Tokyo and cultural differences stands for different aesthetic norm being accepted or rejected.

Key words: cross-cultural research(비교문화연구), private girl's high school uniform(사립여고 교복), youth culture(청소년문화), visual values(조형성)

I. 서론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적 형태와 서로가 공유하는 생각이나 느낌, 행동의 방식, 신념 등을 모두 포함한다.¹⁾ 복식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 물질적인 문화의 형태이면서 비물질적인 문화와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즉 복식은 문화의 한 부분 이면서 다시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변화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복식은 자신의 개성 표현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그 중 청소년의 학교 교복은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화와 함께, 교복의 조형성을 분석하는 것은 21세기에 변화되고 있는 교복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여학생 교복은 1910년대에 외래 신종교가 들어오고 여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고, 1910년에서 1945년 사이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일본의 강압과 이에 대한 민족심의 발로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1931년 숙명여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양장식 교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 말, 숙명여학교는 일제의 강제 몸매 착용에 반대하여 교복을 바지 형태로 제정하였고, 배화학당과 덕성여학교에서는 1938년 개정된 세일러복에 주름치마를 해방될 때까지 계속 입었다.²⁾ 개화사상과 기독교 정신을 집한 여학생들은 일반인들보다 새로운 문화를 더 빨리 접하였고 양장의 수용도 빨랐으며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까지도 주도하였다.³⁾ 1969년 문교부의 평준화 시책에 의해 획일화 되었다가⁴⁾ 1983년 교복

자유화를 거쳐 현재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서양복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복은 과거 획일적으로 입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개성이 담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학교가 선정한 교복 업체들이 교복 디자인을 학생들에게 선보이면,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일본의 여학생 교복은 기모노(きもの) 스타일의 교복을 입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19세기 후반 메이지(明治) 시대에 들어서면서 밀리터리(military) 형태의 교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⁵⁾ 특히 밀리터리 스타일 중 유럽피안 스타일의 해군제복에서 영향을 받아 세일러 칼라(sailor collar)가 달린 세일러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이 스타일은 일본 여학생들 교복으로서의 의미와 동시에 현대적인 복식의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일러복 형태의 교복이 입혀지기도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서양식 수트(suit) 형태의 교복도 등장하는데, 여학생들은 흰 블라우스, 넥타이, 학교 엠블럼이 달린 블레이저를 체크무늬 치마와 착용하기 시작하였다.⁶⁾

이처럼 한국과 일본 여고생의 교복은 처음에는 모두 한복이나 기모노와 같은 각 나라의 전통 복식 스타일이었으나, 시대를 거치면서 각 나라의 교복 스타일은 모두 서양 복식을 받아들이고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 위치한 서로 매우 근접한 나라이면서 몇 십 년의 차이를 두고 모두 서양 복식을 받아들였으나,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여고생들의 실제 교복 착용 모습이나, 영화, 드라마, 만화,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착용 모습들에서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블레이저, 스커트, 블라우스 등의 동일한 아이템을 교복으로 선택하였음에도 디자인과 실루엣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가 다르고, 기후나 경제적 특성이 다르며, 각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각 도시의 여자 고등학생 문화 즉 하위집단의 문화의 차이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국의 여자고등학교 교복의 조형적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 및 교복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거시적 문화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II. 문헌적 고찰

본 장에서는 서울과 도쿄의 전반적인 문화와 각 도시의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비교 고찰하여 각 도시의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서울·도쿄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통계 및 교육제도

서울의 총 면적은 605.52km²이며, 25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다.⁷⁾ 온대에 위치하고, 연평균 기온은 11.6℃이며, 4계절이 뚜렷하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생활에 활기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며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 서울의 연평균 총강수량은 1,365mm로 총 강우량의 60% 정도가 여름에 온다.⁸⁾ 반면, 도쿄의 총 면적은 약 2,187.05km²이며 전반적으로 계절풍, 장마,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고, 연평균 기온은 15℃이며 연 강수량은 1,400mm정도이다.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사계절이 뚜렷하기보다는 비교적 온난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다.⁹⁾ 이러한 기온의 차이는 각 도시의 교복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여고 교복은 춘추복과 동복, 하복의 구분이 뚜렷한 반면, 도쿄의 여고 교복의 춘추복 또는 동복에는 코트류 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스웨터와 가디건이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추운 기후보다는 온난한 춘추,동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과 도쿄의 인구는 2004년 통계 기준으로 모두 천 만 명이 넘으며¹⁰⁾, 2005년 외교통상부¹¹⁾와 The World Bank Group¹²⁾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은 \$15,830, 일본의 GNI는 \$38,980이다. 즉 두 도시 모두 각 나라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이다.

현행 한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제이며 2년제인 단기대학도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고등학교 수는 1,437개이며, 이중 사립 고등학교는 651개이다. 또한 서울 소재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총 217개이며, 여기서 사립고등학교의 수는 140개, 여자 사립 고등학교의 수는 51개이고, 서울의 총 여자고등학교는 61개로, 서울의 여자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여자 사립 고등학교이다. 또한 서울의 고등학교 여학생 입학자 수는 총 44,212명이며 이중 사립 여자 고등학교 여학생 입학자 수는 30,170명이다.¹³⁾ OECD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한국 고등학생 1인당 교육기관 연간 교육비는 US\$6,042(민간 소비에 대한 미국달러의 ppp환산액)이며¹⁴⁾ 서울의 사립 고등학교는 모두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다.

반면, 현행 일본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같은 6·3·3·4제이며, 2년제인 단기대학 등도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고등학교 수는 2001년 기준 총 5,479개이며 이중 도쿄의 고등학교 수는 311개, 도쿄의 사립 고등학교의 수는 186개이다. 일본의 교육 행정제도는 지방자치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OECD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일본 고등학생 1인당 교육기관 연간 교육비는 US\$6,454(민간 소비에 대한 미국달러의 ppp환산액)이며, 일본의 공립 고등학교는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 사립 고등학교는 대부분 입학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¹⁵⁾

2. 서울·도쿄의 청소년 문화

청소년기는 '급격히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서 정서적으로는 심한 갈등을

경험하는 15~20세의 시기'이다.¹⁶⁾ 서울과 도쿄 고등학생의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형성되고 공유되는 행위양식이나 사고방식, 여러 가지 스타일등을 살펴보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크게 사회집단, 학교문화, 대중문화, 성문화, 여가문화, 소비문화, 사이버 문화로 보고 있는데¹⁷⁾,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 문화의 공통적인 특징들이라 판단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사회 집단

가족, 학교 그리고 청소년들이 속한 여러 하위 집단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현대가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가족은 핵가족화 되어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은 개인주의적인 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¹⁸⁾ 그 밖에도 청소년들의 여러 여러 하위 문화 집단에는, 비슷한 성향과 취미를 갖는 동성 친구들 간의 '동료 집단(clique)', 비슷한 성격과 특성을 지닌 조직되지 않는 형태로 어울려 다니는 '폐거리 집단(crowd)', 비슷한 연령 또는 비슷한 성숙 수준에 따라 서로 상호 작용을 주고 받는 '또래집단', 정보사회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인터넷 상에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이버 집단' 등을 들 수 있다.¹⁹⁾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학교 문화와 더불어 하위 집단 내에서 보다 높은 결속력을 가진 독특한 하위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발달된 인터넷 문화로 인해 수많은 사이버 집단을 만들고 있다.

2) 학교문화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화,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화, 수업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문화 등 여러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지만,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형성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자유롭지만은 않은 성격을 가진다. 청소년 의식의 국제비교에 대한 연구²⁰⁾에 의하면, 학교 생활에서 미국과 프랑스 청소년은 '공부', '입시준비', '취업' 등 학교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것을 중시하는데

반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은 '친구 사귀기' 등 '학습'이나 '미래준비' 등 학교의 사회적 기능보다는 정서적, 인간적인 요소들을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다른 나라에 비해 입시 위주 학교교육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거부반응이 매우 강함을 할 수 있다. 학교 폭력 유형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 청소년은 압도적으로 '집단 따돌림'을 지적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이 학교 생활에서 '친구 사귀기'를 가장 중시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학교의 사회심리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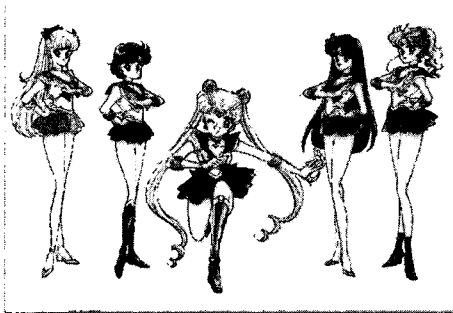
특히 일본식 경영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종신 고용제가 학교 교육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떤 회사에 취직이 되면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정년퇴직까지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류회사에 취직을 하면 종신 고용이 보장되므로 일류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따라서 일류 회사를 가기 위해 일류 대학을 가고자 하고,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해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이러한 현상이 유치원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외의 주쿠(塾)라는 과외 학원을 다니거나²¹⁾ 대학생이나 전문교사로부터 전문 과외를 받고 있다.²²⁾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일류 대학에 들어가 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며, 이를 위한 사교육의 열풍이 거세서 교육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3) 대중문화

라디오와 TV, VTR, M-TV 등의 대중 문화는 문화적 감수성을 대중화 시키며 활자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문화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대중이 수용자의 입장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입장이 되어 문화가 더욱 빠르게 생성되고 확산되었으며, 인터넷과 함께 자란 청소년 세대는 대중문화의 주도권을 잡기까지 이른다. 대중문화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집단적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하며 현실에서 겪는 갈등, 긴장, 불만과 억압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의 기능을 돕기도 한다. 대

중문화를 통한 사회참여도 이루어지며 그들만의 창조적인 하위문화를 구성하기도 한다. 반면 여기에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는데, 대중문화가 청소년들에게 허위 즐거움만 줄 수 있다는 점, 성인 대중문화와의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의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현대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 중의 하나이다. 일본 제작 만화영화를 재패니메이션(Japanimation)이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에서 방영되는 일본제작 만화영화의 TV점유율은 약 65%에 이른다.²³⁾ 다른 나라의 만화와 달리, 일본에서는 만화를 마치 문학처럼 다루는 만화청년이 있어서, 만화문화를 뒷받침하고 성장시켜 왔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서양인도 동양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인종을 애니메이션에서 가상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관객들이 이런 캐릭터를 자신의 분신처럼 인식하며 작품에 동화되게 되는 것이다.²⁴⁾ 예를 들어, 반다이사가 제작한 “세일러문”〈그림 1〉은 변신과 마법의 다양한 소재를 순정물의 판타지와 결합시킨 작품으로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세일러복형 교복을 연상시키는 매우 짧고 몸에 밀착되는 의상은 입고 있는데, 이 의상들은 코스프레에도 자주 등장한다. 세일러문과 같은 소녀만화는 하나의 장르로 확립이 되고 확장되었고²⁵⁾ 여기에 다양한 교복스타일의 의상이 등장하곤 한다.



〈그림 1〉 만화 ‘세일러문’의 등장인물²⁶⁾

4) 성문화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은 남녀 모두 성과 성행동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즉흥적이다. 이것은 여

러 대중 매체의 발달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서구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또한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음란물과 접촉이 쉬워지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의 원조교제의 영향을 받아 1998년부터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등장하여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삶이 무료하고 외로운 중년 남성이 어린 여자고등학생을 만나 ‘교제(식사, 가라오케, 성교)’하고 그 대가로 ‘원조(용돈의 지불)’ 하는 것이다.²⁷⁾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원조교제를 보는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의 원조교제에 대한 생각은 일회성인 성적 관계가 위주이며, 결혼 가정 출신이 대부분으로 부모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의 원조교제는 용돈과 사치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양부모가 있는 중산층 가정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원조교제라는 것을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기도 하며 성관계와 인간관계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대학을 가기 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학교를 중도 포기하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유지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도 가진다고 한다.²⁸⁾ 김태영(2005)²⁹⁾에 의하면, 일본 여학생들의 69.1%가 원조교제를 아주 나쁘다고 보며, 8.3%는 나쁘지 않다고 의식하고 있다.

5) 여가문화

여가 생활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이외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측면의 증진,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한 마음의 여유로움과 감정통제 능력의 습득, 단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인지 등 학교에서의 학습 이외에 인간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그러한 여가 활동을 학습과 병행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이 큰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TV나 PC의 발달, 휴대전화의 보급 등으로 인해 집 밖에서의 여가 활동을 즐기려 하는 것 보다는 집 안에서의 TV시청과 인터넷의 사용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³⁰⁾ 이러한 현상은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만들게 되므로 또 다른 독특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6) 소비 문화

소비 특성³¹⁾은 청소년들의 교복의 착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의복에 대한 인지, 의복흥미와 의복관여, 자기 이미지, 동조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보다 미적 감각이나 의복에 대한 지식, 유행에 대한 정보, 시장 정보 등을 가지고 있어 의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Sproles는 소비자가 의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데 투입하는 시간, 노력, 금전, 개입의 양으로 의복에 대한 흥미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²⁾ 청소년들은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입는 교복을 착용할 때에도 자신을 개성이나 최신 유행 등을 표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를 더욱 돋보이도록 교복을 수선하는 노력을 한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 “<http://cafe.daum.net/schoolmania>” 등과 같은 교복에 관한 카페나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들 사이트에서는 회원끼리 주로 외국의 예쁜 교복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교복을 어떻게 입는 것이 예쁜지, 어떻게 수선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수선집은 어디가 좋은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자기 이미지는 실제적 자기 이미지 보다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 자기 이미지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기 모습으로서의 면경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는 특성이 크다. 도쿄의 사립 여자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평균화되어 있지 않아 시험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위 상위권 학교들의 교복은 본교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주기도 하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여러 교복 관련 사이트에서 특정 학교 교복에 대한 외부인들의 “인

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교복 관련 사이트 “메구링의 세라복 너무 좋아 (セラー服大好き!!)”³³⁾에서 실시한 교복 인기 랭킹에서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상위권 학교 교복이 인기가 많았다. 또한 청소년들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져주기를 바라는 자기 이미지를 중요시하기도 하는데, <그림 2>은 남자 친구의 분위기나 특징에 따라 교복을 어떻게 코디할 지에 대해 소개하는 일본 10대 잡지의 한 페이지이다.

동조성은 청소년들의 소비 행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청소년들은 동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크다. 동조성(同調性)이란 개인의 신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아 그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며, 의복 동조는 다른 소비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과 유사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의 의복 행동에는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고, 어머니의 영향, 대중 스타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물품 구매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은 40%가 또래 집단, 17%가 대중 스타였다고 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소비에서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보면 연령에 따라 동조성에 차이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가장 동조성이 높다고 하였다.³⁵⁾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규범에 순종하는 일종의 동조로 볼 수 있으나, 규범화 되어 있는 교복 디자인 내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디테일들을 변형시켜 유행과 취향에 맞춰 입으면서도, 이러한 변형과 수선의 형태와 방법은 또래 집단과의 강한 동조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청소년 문화는,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게도 소비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고의 자유로움과 개인주의적 성향, 감각주의적인 생활 방식은 ‘신세대(N세대)’문화를 탄생시켰고, 이들은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유명 스타 패션을 모방하려 하며, 충동구매 소비경향이 크고, 스스로



〈그림 2〉 "남학생이 좋아하는 교복 스타일"³⁶⁾

자신의 의복을 구매하여 자기 과시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7) 사이버 문화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서로 특정 관심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 집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화를 이끄는 세대의 연령이 낮아져 오늘날에는 인터넷 세대라고 불리는 10대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적 경향들을 주도하고 있다.³⁷⁾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교복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교복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가상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려 하며, 현실과 가상세계와의 구별이 모호해질 정도로 가상세계에서 또 다른 사회성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바타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얼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 독립적 사고 부여, 다양한 정체성의 체험 내지는 간접적 사회의 경험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상과 현실에 대한 몰구분, 현실적 자아 상실, 폭력성 조장, 충동적 행동, 우울증 유발, 학습장애, 대인기피증 등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제공한다. 결국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지 않는 가상세계에 몰입하게 되면서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한국과 일본의 사립 여고생들의 교복의 조형성에 관한 비교 문화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도쿄의 여자 고등학교 교복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서울과 도쿄의 여자 고등학생들의 교복 착용 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교복 문화와 청소년 문화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2. 연구 범위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교복의 문화적 차이와 조형성을 비교하고자, 세 단계의 분석을 거쳤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여고생의 교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들을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둘째, 한국과 일본의 여고생의 교복의 조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를 각 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로 축소하였으며, 각 도시에 있는 사립 여고의 교복 사진 자료를 내용 분석하였다. 이것은 대도시 학교와 지방 도시 학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차이점을 배제하기 위해 각 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도쿄로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 모두 국립, 공립, 사립형의 고

등학교들이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학교 경영의 유형이 자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배제하고자 연구 범위를 사립 학교로 제한한 것이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과 도쿄의 청소년 문화와 사립 여고 교복의 조형성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각 도시의 문화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 서울과 도쿄 소재의 고등학생 교복의 조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적 요인들을, 지역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교육제도 그리고 서울과 도쿄의 청소년 문화로 보았고, 이들과 관련된 문헌 내용을 찾아 일본과 한국의 청소년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서울과 도쿄의 사립 여자 고등학교 교복의 조형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과 도쿄 소재의 사립 여고의 분포를 파악한 후, 이들 학교 중에서 현재 교복에 대한 아래·위 교복의 식별 가능한 착장 사진을 구할 수 있는 학교를 각 도시별로 20개씩 선별하여 이들 학교 교복 사진을 본 연구의 조형성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일본 교복의 경우, 한국보다 세일러(sailor)복형 교복 디자인이 많이 발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 세일러복 형 교복과 그 밖의 형태의 교복들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일본 교복 20개 중 세일러복 형은 7개, 원피스형 1개, 포멀형(자켓과 스커트 컬러가 동일) 4개, 콤비형(자켓과 스커트의 컬러가 동일하지 않음) 8개였다. 한국의 경우, 여고생의 교복이 대부분 정장형(자켓, 스커트, 셔츠로 이루어진 형태)이었는데, 특히 사립 여고에서 세일러복형 교복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추출한 샘플은 포멀형이 6개, 콤비형이 14개였다(표 1).

분석에 사용되는 교복 사진 이미지는 대부분이 학교 홈페이지와 교복 판매처로부터 수집한 것이므로, 이들 분석과 더불어 다른 대중 매체나 문헌들에

나타난 실제 학생들의 착장 모습을 참고 분석하여 위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보충하기로 하였다.

〈표 1〉 교복 디자인 형태별 분포

디자인 형태	수량(일본)	수량(한국)
세일러복형	7	0
원피스형	1	0
포멀형	4	6
콤비형	8	14
총 샘플 수	20	20

3) 조형성 분석의 단위

복식 조형의 요소는 크게 형태, 색채, 재질, 무늬를 들 수 있는데, 복식의 형식사적 측면의 양식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형태이다. 이 형태의 변화가 곧 패션의 변화로서 인식되어 오기도 하였으므로, 보통 복식조형의 유형을 형태를 중심으로 구분하게 된다.³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복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형태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아이템별 컬러를 분석하여, 서울과 도쿄의 교복의 조형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사진 자료이므로, 재질이나 소재에 대한 식별은 불가능하여 이는 조형성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교복에 주로 사용되는 무늬가 플레이드인 점을 감안하여 플레이드의 비율에 대해서는 조사하였으나, 플레이드는 사용되는 컬러와 패턴은 실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플레이드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추출된 사진 자료들을 전체적 상하 비율, 아이템별 디자인 요소, 아이템별 컬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착장한 모습에서 스커트와 자켓의 길이 비율은 전체적인 실루엣과 룩(look)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하 비율은 상의가 하의보다 길게 보이는 것(上長下短), 상의와 하의의 비율이 동일한 것(上下同一), 상의가 하의보다 짧은 것(上短下長)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인 길이 비율을 분석한 후, 각 아이템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위해, 분석 가능한 아이템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특정 학교의 경우 스웨터나 가디건, 조끼를 포함하는 경우, 이들 아이템의 디테

일과 아이템의 유무 등이 학교별로 많이 달랐으므로 비교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은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도쿄의 여고생들의 교복에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교복에서 중심이 되는 아이템들을 자켓, 스커트, 목장식으로 보았으며, 여기서 셔츠의 경우 착용 상태에서 자켓에 가려져 디테일을 구분하기 어려워 셔츠는 컬러 분석에만 사용하였다. 또한 부가적인 디테일을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착용 상태에서도 디테일 구분이 가능하며, 디자인의 특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트리밍을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 교복에서는 세일러복형 교복이 다수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는 함께 착용하는 자켓 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자켓의 유무가 불확실한 경우는 자켓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세일러 칼라가 달린 셔츠는 대부분 자켓을 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분석하기 용이하였으며, 세일러복형 디자인에서 셔츠는 기본이 되는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디자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교복 디자인 분석에는 크게, 자켓, 스커트, 세일러복 형 셔츠, 목장식, 트리밍이 사용되었으며 컬러 분석에는 디자인 분석에 사용된 아이템 외에도 셔츠가 분석되었다.

아이템별 분석에서 분석 대상이 된 디테일은 각 아이템에서 디자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 디테일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자켓에서는 길이, 앞 여밈의 싱글(single)과 더블(double), 라펠의 유무, 박스(box)형과 피트(fit)형 이었는데, 앞길에 다트가 없는 경우는 박스형, 다트가 있으나 비교적 험렁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자켓은 피트형, 다트가 있으면서 매우 피트 되는 스타일을 타이트 피트(tight fit)형으로 구분하였다. 스커트에서는 길이, 형태(플리츠pleats, 플레어flare, 스트레이트straight)를 분석하였는데, 플리츠의 경우 주름의 개수나 너비와 상관 없이 모두 플리츠로 구분하였다. 세일러복 형 셔츠는 스타일이 학교마다 거의 같은데, 여기에 독특한 그 학교만의 스타일의 결정 짓는 요소가 목장식과 컬러라고 판단하여 아이템 분석에서는 길이와 목장식을 분석하였다. 목장식에서는 넥타이, 리본, 스트링, 스카프, 에스콧(ascot) 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리본이나 스트링, 넥타이 등이 아닌

짧은 스타일의 장식은 모두 에스콧으로 넣었다. 트리밍(trimming)은 '유무'를 분석하였다.

컬러별 분석에서는 교복에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컬러 계열을 뽑아, 네이비(Navy), 레드(Red), 그린(Green), 그레이(Grey), 화이트(White), 브라운(Brown), 스카이 블루(Sky Blue), 베이지(Beige)로 분석하였고, 그 밖에도 체크 무늬는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컬러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의 컬러로 나누지 않고 통틀어 멀티 컬러(multi)로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서울·도쿄 사립 여고 교복의 조형성 비교 분석

서울과 도쿄 소재의 각 사립 여고의 교복의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착용 상태의 상하 길이를 비교하고, 아이템별 분포와 컬러별 분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착용시 상하 길이 비율 비교

착장시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상의(자켓)과 하의(스커트)의 길이 비율은 교복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실루엣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학교 교복의 자켓과 스커트의 상하 길이 비율의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서울과 도쿄의 교복의 상하 길이 비율은 매우 다르게 분포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상의가 짧고 하의가 길었다. 도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상의가 길고 하의가 짧았으며, 나머지는 상하 비율이 거의 동일하였고, 상의보다 하의가 긴 학교는 단 1개 학교가 있었다<표 2>.

<표 2> 착장시 교복의 자켓과 스커트의 길이 비율

상하비율	코드	수량(일본)	수량(한국)
상장하단	A	12	4
상하동일	B	7	3
상단하장	C	1	13
총 샘플 수		20	20

2) 아이템별 분포 비교 (표 3)

(1) 자켓

서울의 경우 세일러복 형 교복이 거의 없어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도쿄의 경우 세일러복 형 스타일이 많았는데, 자켓을 함께 착용하고 있는 사진이 한 가지 밖에 없어, 그 외의 세일러복 형 교복은 자켓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의 여고생 교복의 자켓은 과반수 이상이 힙 위 길이였으며, 대부분이 싱글 버튼에 라펠이 있었고 다트가 있으면서 몸의 실루엣이 드러나도록 꼭 맞는 타이트 피트형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도쿄의 여고생 교복의 자켓은 과반수가 힙 아래 길이였고, 싱글 버튼 앞 여밈에 라펠이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었으며, 모두 박스형이거나 다트가 있으나 헐렁하게 맞는 피트형이었다. 도쿄의 교복에 비해 서울의 교복이 짧고 몸에 피트 되는 형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2) 스커트

서울 소재 여고 교복의 스커트는 대부분이 무릎 길이였으며, 플리츠 스커트가 과반수 이상이지만, 플레어와 스트레이트도 있었으며, 플리츠의 경우, 주름의 수가 하나이거나 맞추름인 교복 등 다양한 플리츠 형태도 있었다. 반면, 도쿄의 교복은 과반수 이상이 무릎 위 길이의 짧은 스커트였으며, 20개 학교 모두 플리츠 스타일이었다.

(3) 세일러복 형 셔츠

서울의 세일러복 형 교복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아 본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쿄의 세일러복 형 교복은 대부분 허리 길이어거나 허리 아래로, 허리보다 짧은 스타일은 없었다.

(4) 목장식

서울의 교복에는 목장식이 없는 스타일이 더 많았는데,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일부 학교들은 본 연구의 자료와 달리 목장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넥타이나 리본 등을 학교 근처의 문구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교복 판매 업체에서 임의로 제거한 후 사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장식이 있는 서울의 교복에서는 넥타이와 스트링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도쿄의 교복 중에서 목장식이 있는 교복은 넥타이, 리본, 스카프, 에스콧 등 그 형태가 다양하였으며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포털형과 콤비형의 경우는 넥타이 또는 에스콧을 함께 착용하고 있었으나, 세일러복 형 교복에서는 스카프나 리본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본 분석에 세일러복 형 교복이 7개나 포함되었기 때문에 목장식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비교하면, 도쿄 교복의 목장식들은 서울 교복의 목장식들에 비해 크기와 부피가 매우 컸다. 서울의 경우는 큰 리본이 하나도 없었고 스트링 등 얇은 끈으로 묶은 스타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똑같이 리본을 묶은 스타일이라도 도쿄

<표 3> 아이템별 분포 비교

아이템	분류	한국	
		지배적인 스타일 (%)	일본 지배적인 스타일 (%)
자켓	길이(힙 위/힙/힙 아래)	힙 위(60%)	힙 아래(57%)
	더블/싱글	싱글(95%)	싱글(71%)
	라펠(유/무)	유(85%)	유(79%)
스커트	박스형/피트형/타이트피트형	타이트피트형(70%)	박스형(71%)
	길이(무릎 위/무릎/무릎 아래)	무릎(55%)	무릎 위(70%)
세일러형 셔츠	형태(플리츠/플레어/스트레이트)	플리츠(80%)	플리츠(100%)
	길이(허리 위/허리/허리 아래)	해당없음	허리(71%)
목장식	넥타이/리본/스트링/스카프/에스콧/없음	없음(70%)	넥타이/리본/스카프/에스콧/없음(각20%)
트리밍	유/무	무(95%)	무(55%)

의 경우는 폭이 넓고 큰 리본을 사용하고 있었고 얇은 스트링을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5) 트리밍

서울의 교복에는 트리밍이 있는 학교는 포켓에만 트리밍을 하고 있는 정신 여고 한 군데였다. 한편, 도쿄의 교복에는 트리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일하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트리밍이 있는 9개의 교복 중에서 다수가 세일러복 형 교복이었다.

3) 컬러별 분포 비교 <표 4>

서울의 교복은 전체 아이템이 네이비, 그레이, 화이트에 치중되어 있으며, 자켓의 컬러 분포는 네이비가 가장 많았고, 레드, 그린, 그레이, 베이지 등도 나타나 도쿄의 교복에 비해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스커트에서는 네이비, 그레이, 플레이드가 있었고 특히 그레이와 플레이드가 많았다. 셔츠는 대부분 화이트였고, 스카이 블루가 3개 교복에서 있었다. 목장식이 있는 경우 네이비, 레드, 그린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도쿄 교복은 전체 아이템이 네이비, 플레이드, 화이트에 치중되어 있었다. 즉 자켓은 대부분 네이비, 스커트는 네이비와 플레이드 두 곳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셔츠는 대부분이 화이트와 네이비였다. 셔츠에서의 네이비는 모두 세일러복 형 교복이었다. 목장식의 컬러는 다양하지만, 네이비와 레드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도쿄 교복에서 화이트 트리밍은 모두 세일러복 형 교복에서 나타났다.

<표 4> 교복 아이템의 컬러별 분포

아이템	한국	일본
	지배적인 컬러(%)	지배적인 컬러(%)
자켓	navy(50%)	navy(57%)
스커트	grey(40%)	navy(60%)
	plaid(40%)	plaid(25%)
셔츠	white(85%)	white(70%)
목장식	navy(43%)	navy(27%)
	red(43%)	red(33%)
트리밍	해당없음	white(70%)

2. 서울·도쿄 고등학생의 문화와 사립 여고 교복의 조형성 비교

이상에서 각 도시의 교복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사립 여고의 교복은 대체적으로 자켓은 힙 위의 길이가 많고 다트를 이용하여 허리가 들어가며 싱글 버튼 여밈에 라펠이 있으며 타이트 피트 스타일이었다. 스커트는 무릎 정도의 길이에 한 두 개의 플리츠가 들어가거나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자켓과 조화되도록 피트(fit)되는 스타일이 대다수였다. 전체적으로는 슬림(slim)하고 몸에 잘 맞는 실루엣으로, 슬림하게 신체의 곡선을 보여주는 오늘날의 여성 수트(suit)의 실루엣과 매우 흡사하다. 여고생들이 이러한 교복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과거보다 더욱 슬림한 체형을 선호하여 가열되는 다이어트 열풍과 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몸짱’ 신드롬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도쿄 소재의 사립 여고 교복의 대체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자켓은 힙 길이어거나 힙을 덮는 길이가 대다수이며, 다트가 전혀 없는 박스형이거나, 다트가 있어도 다트 분량이 작아 몸에 헐렁하게 맞는 타이트형이었다. 스커트는 모두 여러 개의 플리츠가 있는 플리츠 스커트이며, 스커트 길이는 매우 짧아 대부분이 무릎 위의 길이였는데, 이러한 스타일은 어려워 보이는 이미지와 귀여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도쿄 교복의 또 다른 특징은 세일러복 형 교복이 많다는 점인데, 세일러복 형 교복은 귀엽고, 깔끔한 이미지 때문에 학생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해당 학교 학생들이 아닌 “교복 애호가”라는 사람들이 중고품 경매에서 “명문고 시라유리(白百合) 학교” 등의 학교 동복을 야후 재팬 옥션에서 8만 엔씩 주고 구입을 하기도 한다.³⁹⁾ 일본의 TV, 만화, 영화 등의 대중문화에는 어려워 보이고 귀여운 스타일의 여성들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일본의 만화는 이러한 여성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짧은 플리츠 스커트에 헐렁한 상의의 교복은 만화에서도 이러한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교복 착용 모습이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스타일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 교복의 또 다른 이미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일러복 형 교복은 현대 일본 문화의 하나의 독특한 아이콘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1960년대 후기부터는 세일러복 형 교복을 입은 순결하면서도 에로틱한 여학생의 이미지가 포르노그래피에 나타나면서 세일러복형 교복은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복합 이미지(eroguro)를 형성하였다.⁴¹⁾ 심지어 만화나 드라마에서 단정한 세일러복을 입은 여학생의 이미지를 파괴하거나 정숙성과 순결의 이미지를 깨뜨리는 묘사가 많이 나타나며 현재의 세일러복의 이미지는 예상치 못했던 페티쉬(fetish)적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이것을 Kinsella(2002)는 일본 시민정신의 해체와 새로운 정체성의 부재에 대한 염려와 연관시키고 있다.⁴²⁾ 결국 교복의 상징적인 역할로서 규율, 권위, 통제 등의 의미와 페티쉬적 의미가 복합되어 불안정한 문화 상태를 상징하게 되었다.

3. 서울과 도쿄 여고생의 실제 교복 착용 실태

이상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복 사진 이미지들은, 서울 교복 사진은 교복 판매처에서 수집한 사진이다. 일본 교복 사진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사진이 다수이기 때문에, 서울의 교복 사진은 상업적인 홍보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진 것일 수 있고, 일본 교복 사진은 학교에서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으로 꾸며진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보충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는 서울과 도쿄의 여학생들의 길거리 교복 착용 사진들을 참고하여 실제로 교복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수집한 대부분의 사진들은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포착된 사진들이므로 교복의 실제 착용 모습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실제 교복을 착용한 모습은 대체적으로 본 연구의 사진 분석 결과와 유사한 조형성을 보여주었으나, 이상의 사진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보다는 더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예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실제 교복 사진에서

는 보다 슬림 하고 몸에 피트 되는 스타일로 여성적이고 날씬해 보이는 룩(look)을 추구하고(그림 3), 대부분 짧은 양말 또는 스타킹과 함께 착용하고 있었고, 일본의 교복 사진에서는 상의는 박스형 스타일에 하의는 훨씬 짧은 플리츠 스타일로 대부분 목이 긴 양말 또는 루즈 삭스(loose socks)와 함께 착용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였다(그림 4). 콘노 오유키의 소설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マリア様がみてる”는 사립 여고를 배경으로 하는데, 교복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는 보기 드문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길이...”⁴³⁾ 라고 언급하고 있어, 짧은 스커트 교복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한국 여학생의 실제 교복 착용 모습⁴⁴⁾



〈그림 4〉 일본 여학생의 실제 교복 착용 모습⁴⁵⁾

이처럼 서울과 도쿄 여고생의 교복이 실루엣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서울과 도쿄의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문화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을 가장 큰 학교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맞물려 더 높은 동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동조성으로 한국 교복 스타일과 일본 교복 스타

일이 <그림 5>와 같이 유형화되어 인식되기도 한다.



<그림 5> 한국 여고생과 일본 여고생⁴⁶⁾

한편,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 특정 부위를 피트 시키거나 노출하는 것의 여러 방법들은 서양복에서 “여성적” 복식의 요소가 되어 왔다. 피트 되는 부위나 노출의 부위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이것으로부터 당시 여성이 강조하는 부위와 여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요소들이 변화되어 왔다.⁴⁷⁾ 이러한 시대별 차이점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서양복을 받아들인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과 함께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특정 부위의 강조나 노출은 한 문화에서는 매력적이고 트렌디하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짧은 교복 스커트에 대해 한국 고등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일본 여고생 교복 보면 이쁘긴 한데..치마가 심하게 짧잖아요. 왜 그러고 다닐까요?? 학교에서 제재를 안하나 보죠??” (misuk1031 (2005-11-20 13:20 작성))

“실제로 일본 치마는 아주 짧습니다. 길수록 날라리라는 증거죠^^; 우린 반대인데.”(you_know_who(2003-01-20 16:00 작성))

“우리 나라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야한데요. 미니 스커트의 교복.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왜 그런 것을 입는 것이죠?” (subcom3 (2002-12-01 14:09 작성))

일본의 짧은 교복 스커트에 대해 용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을 불편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여학생들은 짧은 스커트를 입고도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짧은 스커트가 불량한 인상을 형성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긴 스커트가 불량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문화는 인간 생활양식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문화는 역사적 경험의 축적물이며, 개인의 영역 뿐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되었을 때 인정되며, 학습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변화 가능성을 지닌다.⁴⁸⁾ 따라서 인접한 국가이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더라도 두 나라의 문화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화와 교복 문화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는데, 한국과 일본 여고생의 교복 스타일은 모두 서양복 형태를 받아들였으나, 여기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각각 영향을 미치면서 많이 변화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교복의 조형성과 청소년들의 교복에 대한 의복행동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Hurlock(1973)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동료집단에서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매력적으로 하고 싶어하며 자신의 신체의 결점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의복이 그 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친구들과 간에 인기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⁴⁹⁾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의복이 중요한 자기 표현과 동조성의 표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시기에 입게 되는 교복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교복은 해당 학교 학생이면 모두 학교가 제정해 주는 대로 동일하게 착용하였는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교복 착용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표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교복은 학교의 규율에 따라 입는 것임에도 학생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복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변형시켜, 자신의 개성과 동조성을 동시에 표현하여 자기 만족과 동시에 집단

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본의 대중문화에는 독특하게도 애니메이션의 발달이 두드러졌으며, 애니메이션에서 여학생 교복 뿐 아니라 여학생 교복 형태를 연상케 하는 스타일의 의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여학생들의 교복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성문화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더 개방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또한 세일러복형 교복은 페티쉬즘적 의미를 가지고 여러 대중문화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각 문화에서 교복에 대한 의미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비문화에 있어서는 모두 동조성과 또래집단에 근거한 소비행동을 보였는데, 교복에 있어서는 도쿄의 사립 여고의 경우 대부분이 입학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데,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소위 명문고의 교복을 구입하여 착용하고 축제와 같은 이벤트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⁵⁰⁾

한편, 서울과 도쿄의 교복의 조형성 분석 결과 서울 사립 여고의 고등학교 교복은 전체적으로 슬림(slim)한 실루엣으로 오늘날의 여성 수트(suit)의 실루엣과 매우 흡사하게 변화였고, 도쿄 소재의 사립 여고 교복은 전체적으로 박스형 상의에 짧은 미니 플리츠 스커트이거나 세일러복 형 스타일이었다. 실제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한 모습은 대체적으로 길거리 착용 사진 분석 결과와 유사하거나 보다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서울과 도쿄의 교복의 조형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과 도쿄의 청소년 문화의 차이점 때문이며, 그 문화적인 차이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미적이라고 느끼는 대상과 미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서울과 도쿄의 여고생 교복의 조형성에 대해서, 서울과 도쿄 청소년 문화와 교복 문화를 연관하여 분석하여 오늘날 서울과 도쿄의 교복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자 사립 고등학교의 교복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남학생과 공립 고등학교를 포함시켰을 경우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둘째, 서울과 도쿄의 교복 사진을 수집할 때, 사진 자료가 시각적으로 분석 가능할 정도의 질을 가진 사진들만 수집하였다는 점, 셋째, 서울과 도쿄의 교복 사진 수집이 교복 판매처나 학교 사이트 등의 특정 정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넷째, 서울은 일부 특목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있고, 도쿄는 대부분이 입학 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각 도시에서의 사립학교의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참고문헌

- 1) Roach & Eicher (1973). *Dress, Culture and Society*, p. 33.
- 2) 고부자 (2001). *우리 생활 100년·웃*. 서울: 현암사. pp. 132-189.
- 3) 이유허, 김진구 (1995). 우리나라 양복수용 과정의 복식변천에 대한 연구-문화전파이론을 중심으로. *복식*, 26, pp. 134-135.
- 4) 임주희 (2004). 여중고등학교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5) Sharon Kinsella (2002). What's Behind the Fetishism of Japanese School Uniform? *Fashion Theory*, 6(2), pp. 215-216.
- 6) *Japanese school uniform* 위키백과사전. retrieved 2006.09.30. from http://en.wikipedia.org/wiki/Japanese_school_uniform
- 7) 행정정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료검색일 2006, 10, 13, 자료출처 <http://www.seoul.go.kr>
- 8) 서울의 기후. 자료검색일 2006, 10, 13, 자료출처 <http://www.daum.net> 신지식.
- 9) 도쿄. 자료검색일 2006, 10, 13,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백과사전.
- 10) 김순전. *op. cit.*, p. 17
- 11) 우리나라 경제통상. 외교통상부 자료 2006년 7월.
- 12) 세계은행그룹. <http://ddp-ext.worldbank.org/ext/DDPQQ/showReport>
- 13) 교육통계정보시스템. 한국교육개발원. 자료검색일 2006, 10, 15, 자료출처 <http://cesi.chedi.re.kr/jcgi-bin>.
- 14) *Education at a Glance 2005*. OECD. retrieved 2006, Nov. 1, from <http://www.oecd.org/edu/eag2005>.
- 15) *Ibid.*
- 16) 루소. 민희식(역) (1992). *에밀*. 서울: 육문사, pp.

- 276~277. (박진규 (2003).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p. 41에서 재인용).
- 17) 조혜영, 김민, 방은령, 최원기, 박선웅 (2005). 청소년 문화론. 서울: 교육과학사, pp. 37-275.
- 18) 김광웅 (1998).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연속. (*Ibid.*, pp. 43-44에서 재인용)
- 19) 조혜영, 김민, 방은령, 최원기, 박선웅. *op. cit.*, pp. 56-62.
- 20) 윤경칠, 전경숙, 김경준, 최원기, 주동범 (2001). 새천년 청소년 의식의 국제비교-한국·미국·일본·프랑스 청소년의 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p. 176-177.
- 21) 이원희 (1957). 현대 일본의 이해.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m pp.93-97.
- 22) 홍진희 (2004). 일본의 문화와 생활.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p. 142.
- 23) *Ibid.*, p. 267.
- 24) 윤상인, 김경균, 김기수, 김봉석, 김응교, 김정래, 염해정, 한창완 (2006). 일본 문화의 힘. 서울: 동아시아, pp. 105-107.
- 25) 김순전 (2006). 일본의 사회와 문화. 서울: 제이앤씨, p. 259.
- 26) 세일러문. 네이버 이미지 검색. 자료검색일 2006, 10, 15, 자료출처 <http://imagesearch.naver.com/>
- 27) 박진규 (2003). 청소년문화. 서울: 학지사, p. 244.
- 28) *Ibid.*, p. 247.
- 29) 김태영 (2005). 일본 문화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보고사, pp. 154-155.
- 30) *Ibid.*, pp. 192-198.
- 31) 이은영 (1998). 패션 마케팅. 서울: 교문사, pp. 326-344.
- 32) *Ibid.*, pp. 336-337.
- 33) セーラ-服大好き!! . TOK2. retrieved 2006. Nov 3, from <http://www52.tok2.com/home/megrin/resalt/resalt06.htm>
- 34) 구정화 (1997). 청소년 소비문화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맹영임, 구정화 (20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1: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 29에서 재인용).
- 35) 이은영. *op. cit.*, p. 334.
- 36) 세라복<192> 남자 애들이 좋아하는 교복. 자료 검색일 2006. 10. 05, 자료출처 <http://newkoman.egloos.com>
- 37) 조혜영, 김민, 방은령, 최원기, 박선웅. *op. cit.*, p. 237.
- 38)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서울: 교문사, p. 147.
- 39) 명문고 <18> 시라유리(白百合) 학원 고등학교. 자료 검색일 2006, 11. 06, 자료출처 <http://newkoman.egloos.com/300544>
- 40) Sharon Kinsella. *op. cit.*, p. 215.
- 41) *Ibid.*, pp. 218-223
- 42) Jennifer Craik (2003). The Cultural Politics of Uniform. *Fashion Theory*, 7(2), p. 143.
- 43) 세라복 <103> 사립 리리안 여자고등학교 교복. 자료 검색일 2006. 11. 06. 자료출처 <http://newkoman.egloos.com/1035452>
- 44) 길거리 여고생의 교복 착용 사진. 자료 검색일 2006. 10. 11,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
- 45) 일본 여고생 교복 사진. 자료 검색일 2006. 10. 11, 자료출처 <http://newkoman.egloos.com/>
- 46) 한국 여고생과 일본 여고생. 로이월드. 자료검색일 2006. 10. 23, 자료출처 <http://www.roiworld.com/>
- 47) Anne Hollander (1994). *Sex and Suits*. New York: Kodansha America, Inc., pp. 40-62.
- 48) 박진규 (2003). 청소년 문화. 서울: 학지사, pp. 16~23.
- 49) 맹영임, 구정화 (20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1: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p. 5.
- 50) 교복, 고교. 자료 검색일 2006. 10. 11, 자료출처 <http://newkoman.egloos.com/>